

30년전 우리는④ : 1974년 4월



“우리들의 지위와 조건의 개선이란 의지와 의욕의 결정체인 우리들 각자의 자력갱생적 수단에 의해 쟁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1974년 4월을 생동감있게 재현하는 것이 가능할까? 사실 지난 역사를 오늘에 되살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당시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기록물이거나 자료일 것이다. 최근 기록물에 대한 당국이나 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뒤늦은 감도 없지 않다. 혹시 좋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1974년 4월에는 우선 한국도서관협회의 각 분과위원회 활동이 주목할 만하다. 목록분과위원회가 4월 15일 첫 번째 회의를 가지고 한국목록규칙(KCR) 개정작업을 1974년도 중점사업으로 결정하였다. 개정작업의 추진방안으로는 우선 목록

관계 전문인사를 참여시키고, 전문인사 중 박영희 동국대도서관 사서과장, 리재철 연세대 도서관학과 교수, 정필모 중앙대 도서관학과 교수를 개정 특별위원으로 추대하고 다음 회의 때부터 초청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 《도협월보》 4월호는 1973년 1월과 5월호에 게재된 박영희 선생의 목록규칙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협회 목록분과위원회 장일세 위원장의 답변이 게재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 목록규칙을 두고 깊이있는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74년 개정논의를 시작한 한국목록규칙은 결국 1983년에 결실을 맺어 3판을 발행하였다. (참고로 한국목록규칙 1판은 1964년, 2판은 1966년에 발행되었다. 1983년 3판 발행 후 7년이 지난 1990년에 3.1판이 발행되었

고, 1996년 4권이 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 하나의 주목할 회의는 용어분과위원회다. 이 위원회 역시 4월 19일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용어를 정리하는 일은 학문의 정착과 발전은 물론 도서관 현장에서의 업무 발전에 있어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1974년 이전에 이미 1966년 『圖書館用語集』이 발행된 바 있다. 이 날 회의에서는 1974년 중으로 개정판을 발간할 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개정작업의 범위를 용어집 내용 전체와 이미 1969년 7월 위원회에서 용어의 개정을 의결하고 작업에 착수해서 5차례에 걸쳐 발표했던 시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여섯 번째 시안이 6월호에 게재되었다.) 이러한 활동들이 결국 오늘날 우리나라 도서관과 문헌정보학(도서관학)의 기반을 다진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의 노력을 되짚어보고 확인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사무국 일지에 따르면 4월 9일에 제1차 교육조사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이 위원회는 도서관통계 조사사업을 주로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도서관협의회 제7차 정기총회가 4월 29일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1974년 사업으로 의학관계잡지종합목록, 뉴스레터, 회지 발간 등의 사업을 채택하고, 임원개선을 통해 새로운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고 한다. 한편 4월 20일에는 대구시립도서관에서 경북도서관학회가 창립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도서관 전문인들의 학술연구단체가 조직되었다는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1974년에 신설된 경북대, 계명대, 한국사회사업대의 도서관학과 교수와 경북도내 도서관 전문인들이 모인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계명대의 김남석 교수가 초


대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김 교수는 지방도서관 발전을 늦추는 요인으로 사서의 기근과 자료의 부족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도협월보》는 전하고 있다. 30년 전 창립된 경북도서관학회의 뜻과 노력은 오늘날 대구와 경북지역 도서관이 크게 발전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에서 지역단위 전문인들의 노력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어린이회관 도서관에서는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독일과 뉴질랜드 아동도서 전시회가 열렸다고 한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성년이 된 직원을 위한 '축복모임'이 있었다는 소식도 있다. 지금까지 이런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지는 모르겠으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조직의 성과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할 때, 도서관들에서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30년 전 성년 축복모임이 있었다는 소식은 잔잔한 즐거움을 전해 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은 4월호 특집 주제로 '사서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서교육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새로운 교육방향을 제시하는 글을 실고 있다. 이미 1974년에도 사서강습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실제 몇 가지 의미 있는 제안도 하고 있다. 김세익 교수는 각 도마다 한 개의 교육기관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재에도 우리나라에서 모든 지역에 문헌정보학과 또는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못하다. 30년 전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 제안은 유효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사서교사 문제도 제기하면서 학교도서관법을 만들어서라도 사서교사제도를 확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

재 사서교사제도는 만들어져 있지만, 현장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 도서관법 제정 움직임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김교수의 제안은 새삼스럽다. 국립중앙도서관 이택준 선생은 사서자격제도와 관련하여 “법률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나라의 손으로만 이를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약간의 의문이 간다. 즉, 사서의 자격이나 도서관의 기준은 나라가 아니면 정할 수 없는가 이다. 그러나 그렇지만도 아닌 것 같다. 도서관 자체의 자주규제에 의해서 정해지는 법률도 외국의 예로는 있다. (중략) 모든 종류의 도서관이 나라가 되어 강력한 조직으로, 즉 도서관협회 등이 도서관 전체에 적용될 사서제도를 확립한다면, 관공청의 소관이 여러 갈래로 흐트러진 상태임으로, 도저히 일원화를 바랄 수 없는 도서관제도의 통일 현실에 대하여 그 기초적인 가능성이 있게 되며, 나아가 우리나라 도서관의 진흥발전에 기여하는 바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사서와 준사서로 되어 있는 것을 1급부터 4급까지 4단위 제도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이미 상당부분 현재의 제도 속에 받아들여져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사서자격제도의 주도권이 정부에 있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우리 자체의 주제적 능력 강화나 강력한 연대를 통한 사서직의 전문성 강화와 권익 확보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번 글을 마치면서 또 다시 눈길이 머무는 것은 지난 호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도협월보》의 'KLA 코너'이다. 4월호에는 '삶의 태도와 전략'이란 제목으로 당시 우리나라 도서관계를 휘감고 있는 직업관이나 학문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한 의욕과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인간이 삶에 있어 금욕(金慾)을

잃는 것이 가장 적게 잃는 것이지만 의욕을 잃는다는 것은 가지 전부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전제하고 “우리들의 지위와 조건의 개선이란 의지와 의욕의 결정체인 우리들 각자의 자력생생적 수단에 의해 생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능동적 봉사라는 도서관의 목적지향적인 방향으로부터, 다른 편으로는 관계요소와의 상호협력관계의 강화에 의해 인간관계를 형성시켜 거저에 흐르고 있는 불만적 요소의 꾸준한 억제로부터 목적달성을 위해 정진해 간다면 우리는 결코 슬프지 않은 것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짧은 글을 읽고 다시 눈길은 광고에 머문다. 한국도서관협회가 1974년까지 펴낸 각종 출판물을 소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도서관학총서와 도서관학번역총서가 눈에 띈다. 각각 13종 14권과 9종 9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출판은 전문가 그룹 또는 전문직 단체의 가장 능동적인 자기표현 내지는 의욕적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부문에서도 활발한 출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다양성과 양적 성장의 내면에 어떤 의식과 의욕이 흐르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자기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타인과의 공동의식 소유, 그리고 많은 정보를 소유해야 사람이 심리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라는 말 속에서 과거는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들어있지 않을까 한다. 과거는 오늘의 뿌리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한다. 

[글 : 이용훈 협회 기획부장, blackmt@hitel.net]